

Kstat Report

2020년 5월 20일

케이스탯리서치 5월 정기지표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- 대한민국이 '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' 74%, 지난 조사 대비 9%p 증가

경제 방향성 평가

- 경제 방향성, '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' 56%, 지난 조사 대비 9%p 증가

정부 신뢰도

- 정부 신뢰도, '신뢰한다' 65%로 지난 조사 대비 7%p 증가

정부정책 만족도

- 정부정책, '만족한다' 57%, 지난 조사 대비 8%p 증가

사회통합성 평가

- 사회통합성, '통합되어 있다' 27%, 지난 조사 대비 6%p 증가

개인 행복도

- 개인 행복도, '행복했다' 51%, 지난 조사 대비 9%p 증가
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-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, '이룰 수 있다' 40%, 지난 조사 대비 7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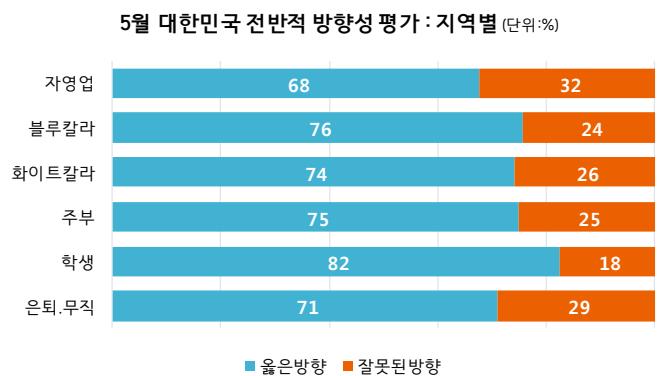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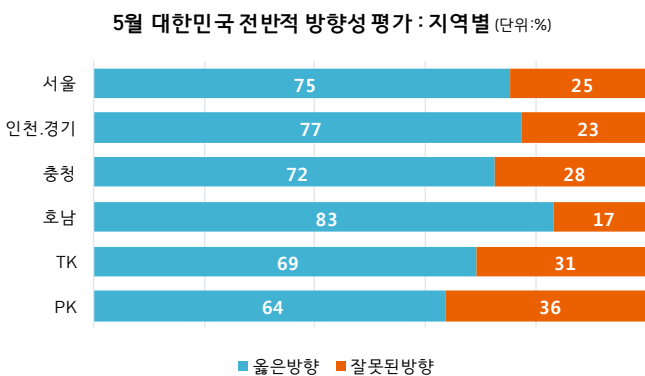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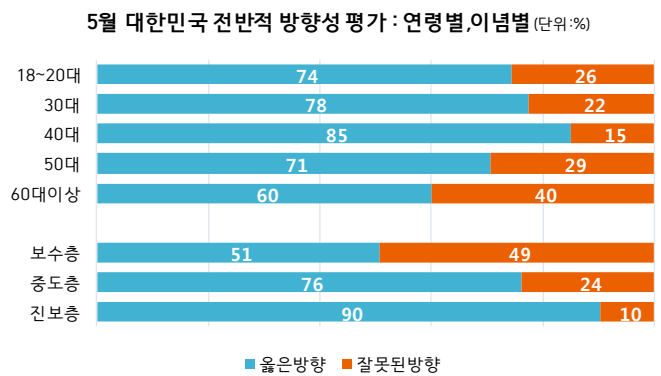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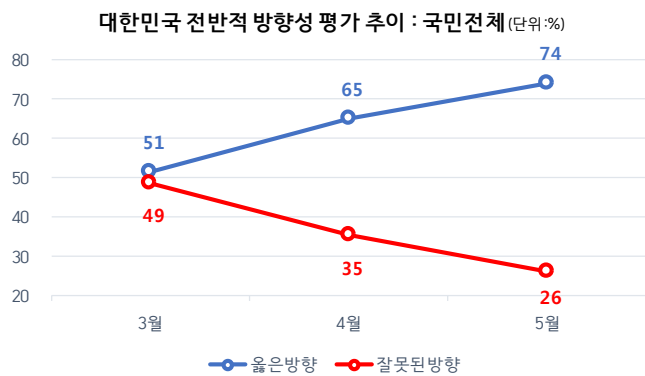
• • • • 일러두기

- ❖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- ❖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 - ❖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 - ❖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-

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

대한민국 '옳은 방향' 가고 있다, 74%

- ▶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,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'옳은 방향' 74%, '잘못된 방향' 26%로 긍정의견이 다수를 차지함
- 지난 3월에는 '옳은 방향' 51%, '잘못된 방향' 49%로 팽팽한 양상이었으나 '옳은 방향'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74%까지 늘어남
- ▶ 모든 계층에 걸쳐 '옳은 방향'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 특히 높은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학생 계층으로 나타남
- ▶ 이에 비해 '잘못된 방향'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PK △자영업 계층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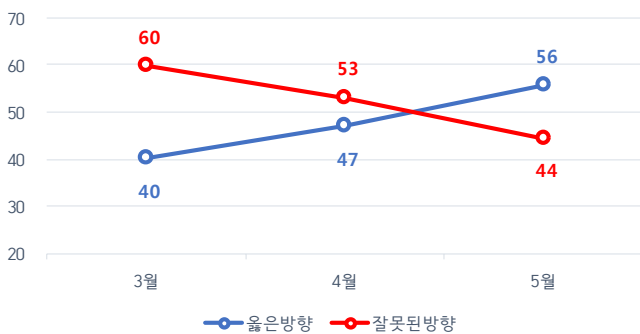
- ▶ '옳은 방향'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데는 국가·국민적으로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
-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고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적 참여도도 높다는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- ▶ 이러한 흐름에 따라 6월에도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

경제 방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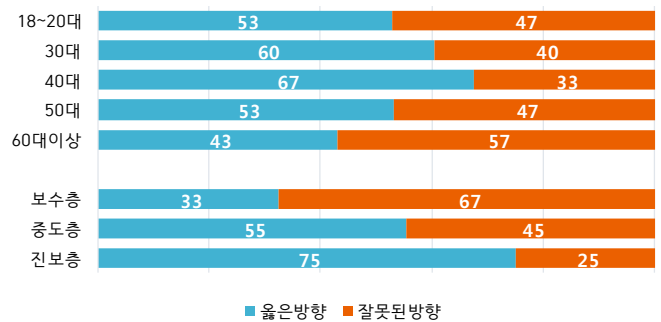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, '옳은 방향' 56% vs '잘못된 방향' 44%

- ▶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56%가 '옳은 방향' 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, '잘못된 방향' 이라는 응답은 44%로 나타남
 - 3월, 4월까지는 '잘못된 방향' 이라는 부정평가가 우세했으나 5월 들어 긍정평가 우세로 역전됨
- ▶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부정평가가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PK 등으로 나타남
 - 이들 계층은 현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계층으로,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'옳은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, 경제는 '잘못된 방향'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
- ▶ 긍정평가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블루칼라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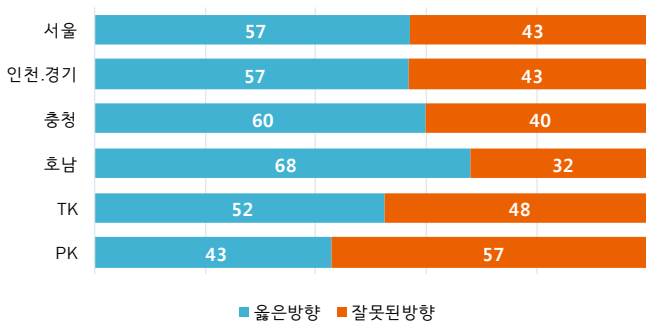
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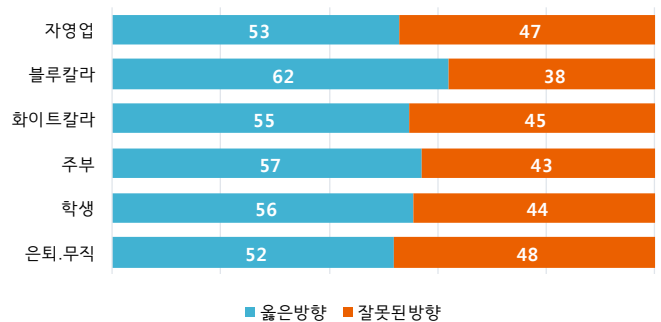
5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연령별, 이념별 (단위:%)



5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지역별 (단위:%)



5월 경제 방향성 평가 : 직업별 (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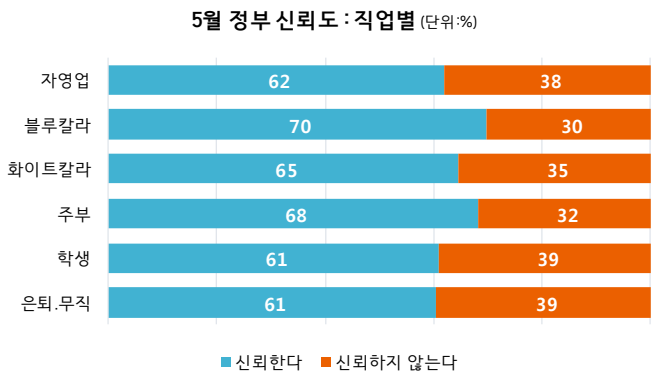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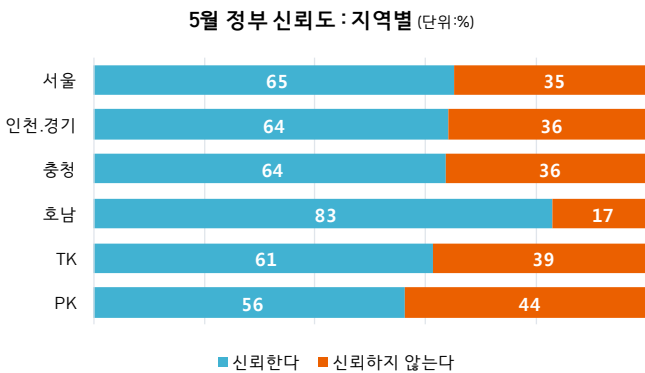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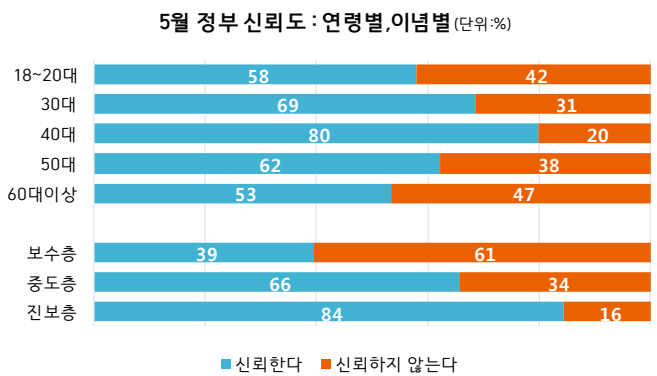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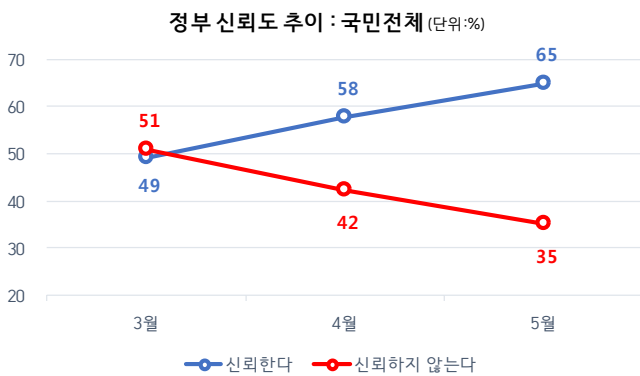


- ▶ 5월 들어 경제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층이 확대된 데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어가는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
 - 또한 전 국민적으로 지급되는 '긴급재난지원금'과 정부의 3차 추경안 편성 계획 발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- ▶ 정부는 3차 추경안을 6월 초에 제출할 예정에 있고, 규모도 역대급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달 경제 방향성 평가는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됨

▣ 정부 신뢰도

※ 정부, '신뢰한다' 65% vs '신뢰하지 않는다' 35%

- ▶ 정부 신뢰도에 있어서 국민 중 65%가 '신뢰한다'고 응답했고,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은 35%로 나타남
- 지난 3월에는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근소하게 우세했으나, 4월 부터는 '신뢰한다'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'신뢰한다'는 응답이 높았으며, '신뢰한다'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등으로 나타남
- ▶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우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PK 등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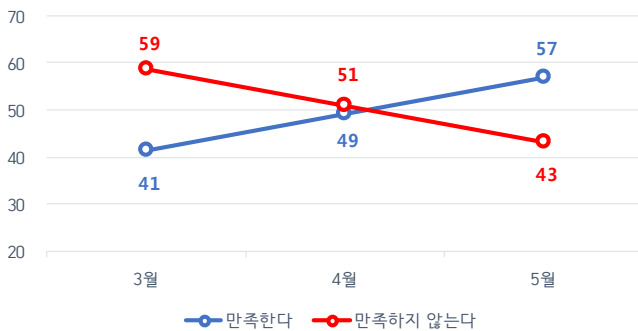
- ▶ 최근 몇달 동안 모든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'신뢰한다'는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
- 3월에 '신뢰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높았던 배경에는 이른 바 '마스크 대란'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
- ▶ 정부는 5월 들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, 등교 개학까지 시작하는 등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큰 문제없이 정착될 경우 정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- 반대로 정부의 완화된 방침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 신뢰도는 하락할 것으로 보임

▣ 정부정책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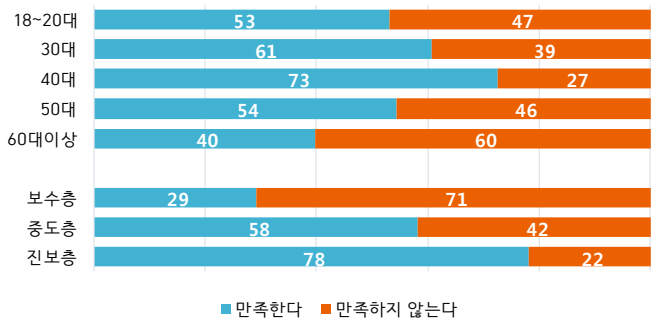
※ 정부정책, '만족한다' 57% vs '만족하지 않는다' 43%

- ▶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국민 중 57%는 '만족한다'는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, '만족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43%로 나타남
 - 3월에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고, 4월에는 긍정/부정 의견이 팽팽했으나 5월 들어 긍정 의견이 우세해짐
- ▶ '만족한다'는 긍정적 의견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우세한 가운데 '만족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등으로 나타남
 - 이들 계층은 정부 관련 질문 대부분(경제방향성, 정부신뢰도)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, 현 정부에 비판적인 계층으로 보임
- ▶ '만족한다'는 긍정적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40대 △진보층 △호남 등으로 나타남
 - 이들은 정부 관련 질문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, 현 정부 핵심 지지층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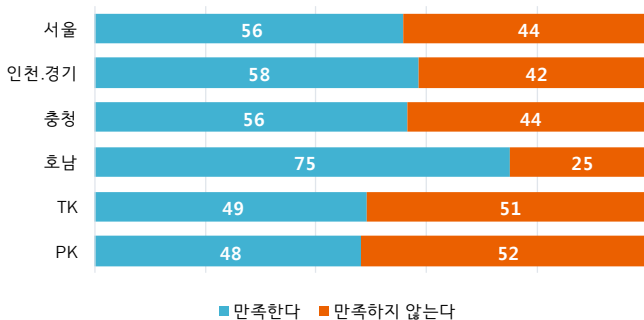
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: 국민전체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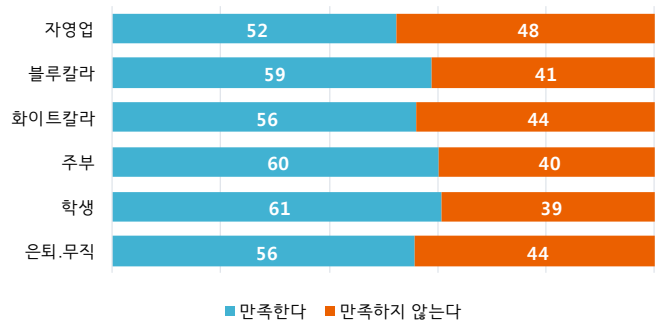
5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연령별, 이념별 (단위:%)



5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지역별 (단위:%)



5월 정부정책 만족도 : 직업별 (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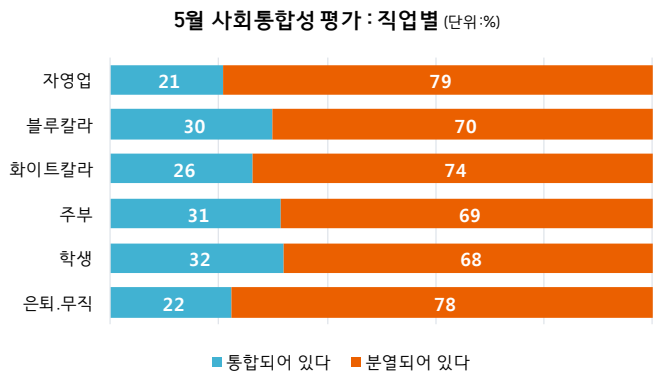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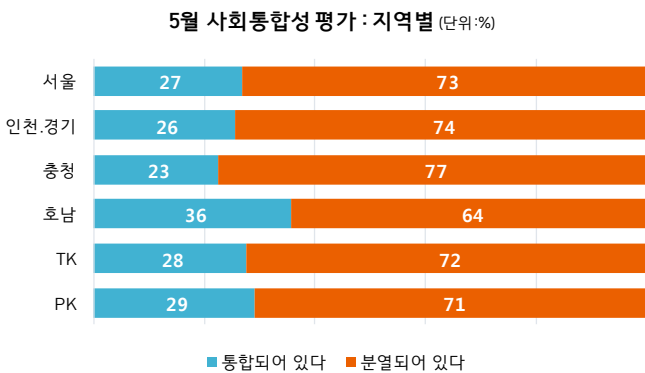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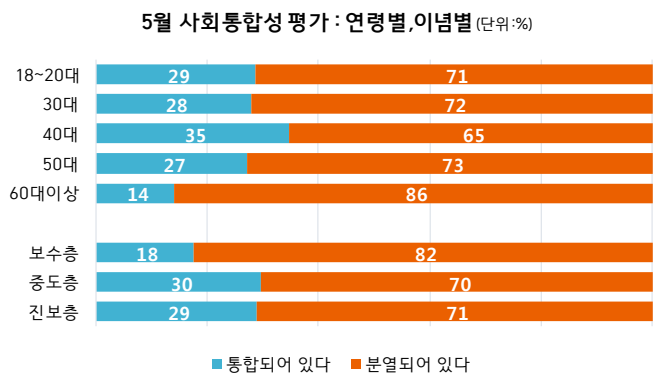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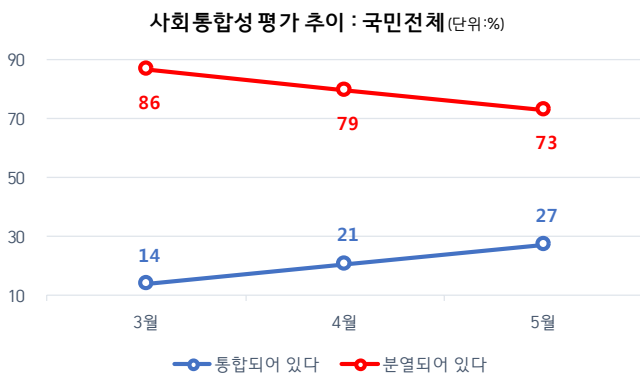


- ▶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, 경제 방향성, 정부 신뢰도, 정부정책 만족도 등 대부분의 사회지표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처 때문으로 분석됨
- ▶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처가 각종 사회지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됨

▣ 사회통합성 평가

※ 우리사회, '통합되어 있다' 27% vs '분열되어 있다' 73%

- ▶ “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,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?” 라는 질문에 ‘분열되어 있다’는 응답이 73%로 높게 나타남
- ‘통합되어 있다’는 응답은 지난 3월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27%에 그침
- ▶ ‘분열되어 있다’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이상 △보수층 △은퇴.무직자 계층 등으로 나타남
- ▶ ‘통합되어 있다’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40대 △호남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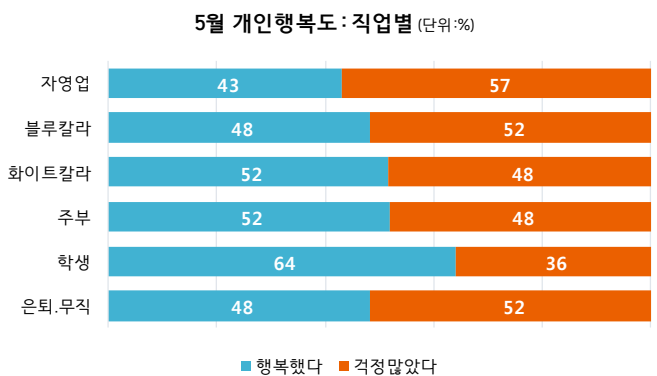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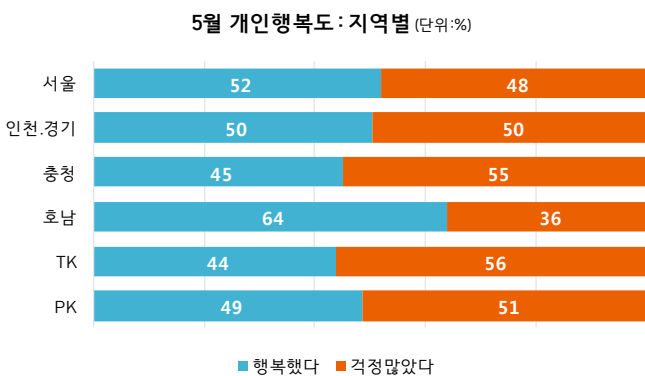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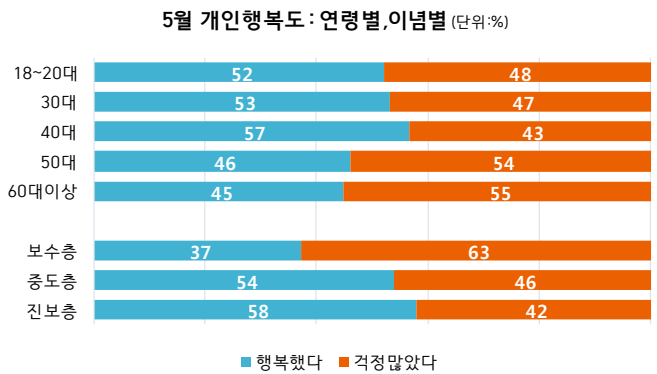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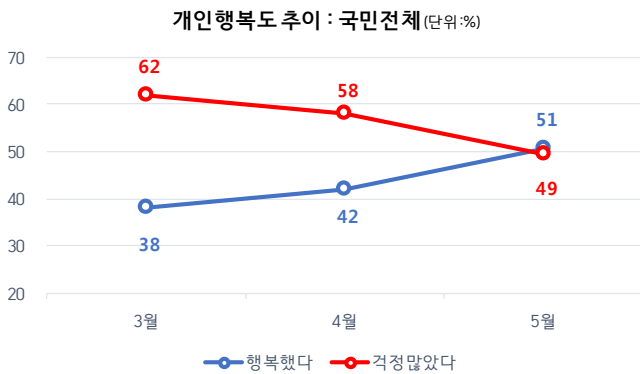


- ▶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‘분열되어 있다’는 생각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임
-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‘분열되어 있다’는 생각이 강한 것은 사회 분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
-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이후 사회적 분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됨
- ▶ 실제로 우리 사회 갈등 수준에 대해 ‘심각하다’고 생각하는 국민은 93%에 달하고 있고, 가장 심각한 갈등은 빈부갈등과 이념갈등이라고 응답하고 있음
- ▶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호 『‘국민 갈등 의식’ 심층 분석』(2020년 3월 12일자) 참조

▣ 개인 행복도

※ 어제 하루 '행복했다' 51% vs '걱정 많았다' 49%

- ▶ “선생님께서서는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행복하셨어요, 아니면 걱정이 많으셨어요?” 라는 질문에 ‘행복했다’는 응답이 51%로 나타났고, ‘걱정 많았다’는 응답은 49%로 나타남
- 3월과 4월에는 ‘걱정 많았다’는 응답이 우세했으나, 5월에는 근소하지만 ‘행복했다’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
- ▶ 계층별로 살펴보면 ‘행복했다’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2040 세대 △중도층과 진보층 △서울, 호남 △화이트칼라, 주부, 학생 등임
- ▶ 이에 비해 ‘걱정 많았다’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△5060 세대 △보수층 △충청, TK, PK △자영업, 블루칼라, 은퇴.무직 계층 등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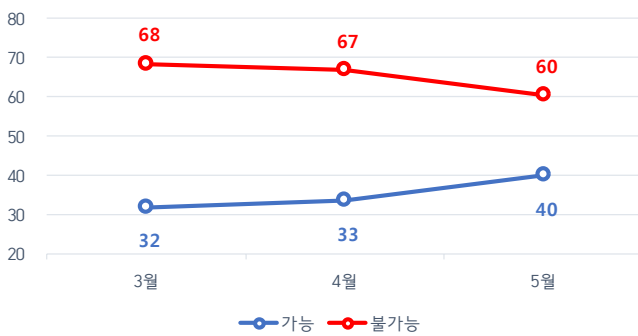
- ▶ 매달마다 ‘행복했다’는 의견이 높아진 데는 역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인 것이 큰 요인으로 보임
- ▶ 한편, 이념성향에 따라 긍정/부정 감정을 다르게 느끼는 점이 특징적임
 - ‘행복했다’는 의견은 진보층 > 중도층 > 보수층 순인데, 이는 지난 조사에서 공통된 흐름임
 - 현 정부가 진보성향 정부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진보층은 긍정감정을, 보수층은 부정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
- ▶ **우리 국민의 행복관련 의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2호 『‘행복’ 관련 국민의식 심층 분석』(2020년 3월 26일자) 참조**

㉨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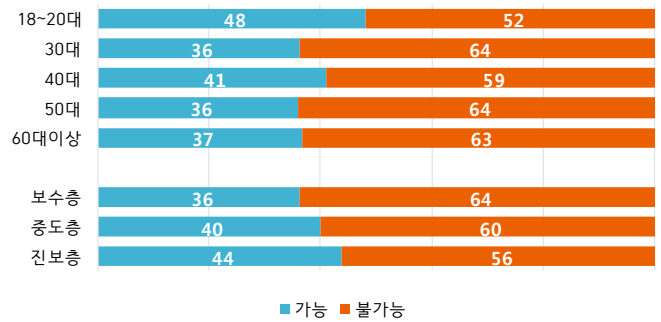
※ 개인 노력으로 계층 상승, '가능하다' 40% vs '불가능하다' 60%

- ▶ “선생님께서서는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, 그렇지 않으세요?” 라는 질문에 ‘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’는 응답은 40%로 나타났고, ‘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을 이루기 어렵다’는 응답은 60%로 나타남
- 3월에 비해서는 ‘가능하다’는 응답이 8%p 늘었으나 여전히 국민 다수는 ‘불가능하다’고 생각하고 있음
- ▶ 학생 계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‘불가능하다’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‘불가능하다’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△30대, 50대 △보수층 △충청, TK, PK △화이트칼라, 주부, 은퇴.무직자 등임
- ▶ ‘가능하다’는 응답은 학생 계층이 유일하게 우세하고, 상대적으로 ‘가능하다’ 의견이 높은 계층은 △18~20대 △진보층 △호남 △자영업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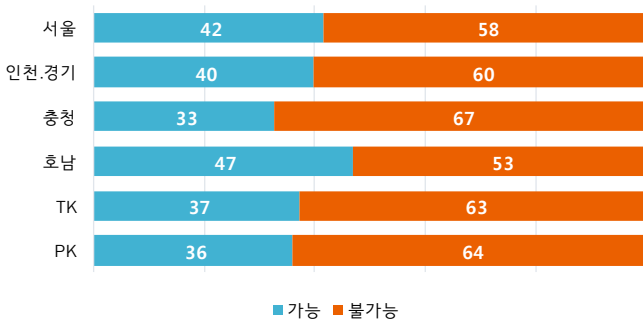
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: 국민전체 (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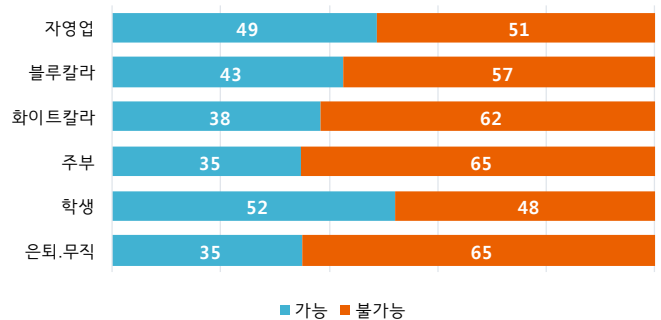
5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연령별, 이념별 (단위:%)



5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지역별 (단위:%)



5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: 직업별 (단위:%)



- ▶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없다는 의견이 높은 것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
- 이른 바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사라져버린 것으로 이는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력활용이 제한되는 등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되는 등 국가·사회발전을 저해하게 됨
- ▶ 참고로 OECD는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소요된다고 분석함
-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을 때 무려 150년이 걸려야 저소득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사회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임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

2020년 5월 7일(목) ~ 5월 10일(일)

조 사 방 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
조 사 기 관

케이스탯리서치

표 본 추 출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
표 본 틀

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
유 효 표 본

총 1,050명

표 본 오 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02\%p$

가중치 부여방식

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
(2020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“**Kstat Report**”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

- **Kstat Report**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**Kstat Report**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

Kstat Report 06호(2020.05.28.)는 “**흡연과 건강**”을 주제로
찾아뵙겠습니다.